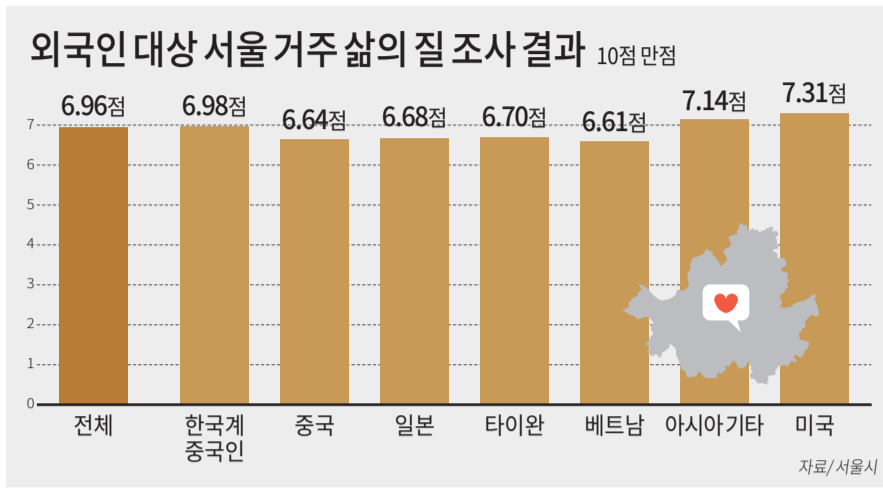


# 서울살이 외국인 국적별 만족도, 미국 '최고' 베트남 '최저'

91일 이상 체류 외국인 대상 설문  
서울살이 만족도 평균 6.96점  
유럽권 외국인 행복지수 높아



외국인의 국적별로 서울살이 만족도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졌고, 미국인은 높았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내에 91일 넘게 체류 중인 만 20세 이상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시가 관내 외국인들에게 서울에 살면서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0점: 매우 불만족, 10점: 매우 만족)를 묻은 결과 평균 6.96점으로 전년 6.90점과 비교해 0.06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 삶의 질 만족도가 달랐다. 미국(7.31점)이 만족도 1위를 기록했

다. 이어 유럽권(7.29점), 영미권 기타(7.15점), 아시아 기타(7.14점), 한국계 중국인(6.98점) 순이었다.

베트남은 6.61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은 서울의 사회환경(6점), 복지환경(6.27점), 교육환경(6.33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응답했다.

외국인들이 서울살이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든 것은 '경제 활동 기회 획득'(5.01점)이었다. 이들은 '공공 행정기관을 통한 민원제기 및 해결'(5.14점), '지식·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획득'(5.31점), '한국인과 원활한 유대 관계 맺기'(5.36점)도 어렵다고 답했다. 이와 반대로 '음식'(6.13점), '언어문제'

(6.11점)에서는 어려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국을 떠나 서울로 온 외국인들은 행복할까. 외국인 응답자의 행복지수(가장 불행한 상태: 0점, 가장 행복한 상태: 10점)는 6.80점으로 전년 6.99점 대비 0.19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지수는 유럽권(7.30점)에서 가장 높았고, 일본(7.29점), 영미권 기타(7.10점), 아시아 기타(6.98점), 미국(6.91점)이 그 다음이었다. 한국계 중국인(6.72점)은 행복지수가 가장 낮았다.

스트레스 체감도(0점: 전혀 느끼지 않았다, 10점: 매우 많이 느꼈다)는 타이완(5.99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국(5.64점), 한국계 중국인(5.02점), 영미권 기타(4.90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유럽권(4.33점)과 미국(4.35점)은 스트레스 체감도가 낮았다.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은 '재정상태'(57.4%)를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다. '건강상태'(30.4%), '외국인 친구와의 관계'(23.1%), '과도한 업무·학습량'(19.2%), '가족과의 관계'(18.3%)가 그 다음이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3명 이상(35%)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외국인이란 이유로 직장이나 일터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차별을 받은 주된 이유(중복응답)는 '출신국가'가 44%로 가장 많았다. '한국어 언어 능력'(38.3%), '경제력'(34.3%), '외모'(26.5%), '직업'(15.1%), '종교'(8.9%)가 뒤를 이었다.

베트남(62.0%), 중국(50.6%), 한국계 중국인(46.7%)에서 차별받은 주된 이유가 '출신국가'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한국어 언어 능력 때문에 차별받았다'는 응답은 영미권 기타(54.2%), 아시아기타(48.4%)에서 많았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소상공인가정 대학생에 2억 장학금

서울장학재단-KT&G장학재단  
총 200명에 각 100만원씩 지급

서울장학재단과 KT&G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가정 대학생 20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KT&G장학재단의 기부금으로 신설된 'KT&G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의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가정의 대학생으로서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서울 시민이면서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또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2021년 1학기 또는 2학기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학교 성적은 전체 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직전 정규학기 이수 학점은 12학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

하다. 희망자는 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재단은 선발된 200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2억원의 장학금을 줄 예정이다. 선발 결과는 11월 말 발표된다.

KT&G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 '뷰티도시 서울' 네이밍·영상 공모전

도시브랜드·파급력 확장  
국내외 SNS채널·행사 활용

서울시는 이달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뷰티도시 서울'의 브랜드 이름(네이밍)과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 주제는 '세계의 뷰티 트렌드를 주도하고 세계 뷰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서울'이다. 본 공모전을 시작으로 시는 서울의 도시브랜드와 파급력을 K뷰티 산업 전반으로 확장한다는 목표를 다.

공모에는 내국인은 물론, 서울을 사랑하고 K뷰티에 관심이 있는 국내·해외 거주 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분야는 네이밍(이름)과 영상 총 2개다.

네이밍(이름) 공모 참여 희망자는

'뷰티도시 서울'을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 이름(영문 30자 내)을 제출하면 된다. 영상의 경우 광고, 애니메이션, VR, 뮤직비디오 등 형식에 제한 없이 20초 이내로 콘텐츠를 만들어 디지털파일(MP4) 형태로 내면 된다.

시는 12월 중 ▲금상 각 1점 ▲은상 각 4점 ▲동상 각 5점, 총 20점의 수상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네이밍 분야 수상작은 '뷰티도시 서울' 사업 홍보 영상물과 광고물 제작에, 영상은 서울시 국내외 SNS 채널과 서울시 행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과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모전 참가자는 사이트 내에서 바로 연결되는 구글폼을 통해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 '2021 서울관광대상' 후보자 모집

서울관광 재도약 의지



서울시는 오는 25일까지 '2021 서울관광대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관광대상은 서울이 세계적인 관광 대표도시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된 관광인들의 자긍심과 영예를 고취하고자 시가 2019년 처음 도입한 행사로, 올해 3회째를 맞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상은 정부가 방역 체계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하는 시기와 맞물려 그간 어려움을 겪은 관광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서울관광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는 ▲관광인 ▲관광콘텐츠 ▲관광기반 ▲관광마케팅 ▲관광정책 총 5개 분야, 12명 내외로 후보자를 모집한다. 서울관광대상은 각 분야별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된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남산 아는만큼 보여요 전시회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장충단공원 전통가옥 다담에뜰에서 '남산의 자연 생태 '아는 만큼 보여요!' 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생태 소식지인 '남산 생태 보물창고' 발행 3주년을 맞이해 마련된 행사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소식지는 총 46부이며, 사업소는 계절별·월별 대표 생물을 담은 소식지 28부를 선정해 전시한다.

다담에뜰을 방문한 시민들은 남산의 생태와 관련된 사진, 글 그리고 영상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사업소는 2019년 6월 5일부터 현재까지 매월 2회씩 남산공원을 찾은 시민에게 공원 내 무인 배포함을 통해 '남산 생태 보물창고' 소식지를 제공해왔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0월 18일 (월)  
음력 : 9월 13일

수도권 날씨  
4 ~ 1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예보: Kw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미국 DIA “北, 내년 핵실험 재개” 우려  
▲정부, 기시다 야스쿠니 공물 봉납에 “실망과 유감” /사진 뉴스스

▲아이티서 美 선교단체 소속 17명 피랍  
▲영국, 코로나 신규확진자 나흘 연속 4만명 이상



▲유엔 식량안보위 “작년 기아인구 8억 명...국제사회 대응 촉구”  
▲中 “싱가포르, 중국 CPTPP 가입 신청 환영 표명” /사진 뉴스스